

43대 항공기, 72개 노선... 고객지향 혁신으로 飛翔

〈국내·외〉

제주항공 취항 13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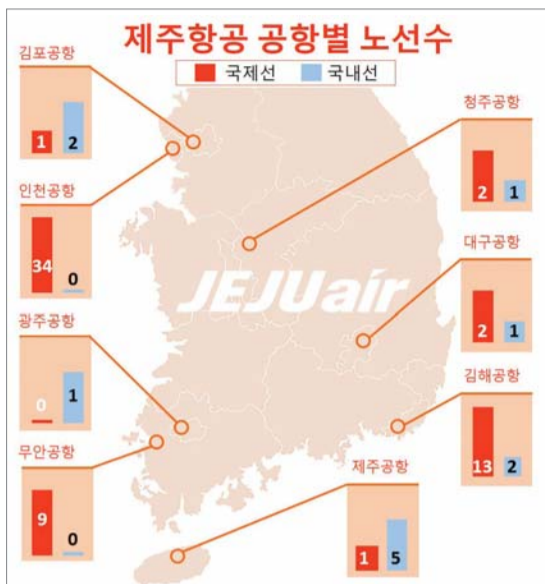
국내거점 8곳, 하루 230편 운항
지난해 첫 '매출 1조 클럽' 가입

안전고도화 위해 전문가 컨설팅
새로운형태 뉴클래스 좌석 도입
고객니즈 맞춰 유료라운지 운영

제주항공이 오는 5일 취항 13주년을 맞이한다. 제주항공은 올해 '안전운항 체계 고도화'와 '고객 지향적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목표로 경쟁사와 차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3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5일 제주~김포 노선에서 첫 운항을 시작한 제주항공은 현재 6개의 국내선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3개 도시에 모두 72개의 정기노선을 보유 중이다.

2006년 취항 당시 항공기 1대로 시작했던 제주항공은 현재 43대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 취항초기 제주, 인천, 김포에 집중됐던 거점공항도 김해와 대구, 광주, 청주, 무안 등 전국 8개 공항으로 확대해 전국 각지에서 하루 평균 230여편을 운항 중이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매출액 1조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2년 연속 1000억원대를 유지했다.

제주항공은 이 같은 외형성장에 발맞춰 올해 '안전운항체계 고도화'와 '고객 지향적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목표로 정해 차별화를 꾀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제주항공은 안전운항체계 고도화를 위해 지난 1분기 중 자체 훈련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모의훈련장치(시뮬레이

터) 도입 및 안전관리 품질, 절차에 대한 해외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마쳤다.

마케팅 부문에서는 고객 편의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가격 이외의 새로운 여행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경쟁사와 근본적인 차별화를 꾀하고, 충성고객을 늘려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해 시장 지배력을 키워가겠다는 전략이다.

제주항공은 오는 7월4일 부산~싱가

포르 노선 취항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좌석 서비스 '뉴클래스'를 도입한다. 현재 189석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부 항공기의 좌석을 174석으로 재조정해 앞뒤, 좌우 좌석간격을 넓힌 이른바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뉴클래스 12석과 기존 일반석 162석으로 운용된다. 12석의 새로운 좌석은 단순히 앞뒤 간격만을 넓어진 형태가 아니라 복도를 사이에 두

고 기존 3-3 형태가 아닌 2-2 형태로 변경해 좌석간격을 넓힌 게 특징이다.

또 지난 1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에 제주항공 국제선 탑승객을 위한 유료 라운지 'JJ라운지' 운영을 시작했다. JJ라운지에서는 고객이 취항에 맞게 원하는 재료를 직접 선택해 만드는 DIY 샐러드와 비빔밥, 샌드위치 등이 제공된다.

지난 4월부터는 고객 니즈에 맞게 운임 선택이 자유로운 '패어 패밀리'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는 유료 부가서비스인 위탁수하물, 좌석 사전지정 서비스 등을 여객 운임과 결합한 형태의 운임 제도다. 위탁수하물이 없는 승객은 기존 운임보다 할인하고 또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취항 13주년을 맞은 중견항공사 위상에 맞게 항공 여행을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와 관심사항을 다양하게 수용 중"이라며 "이용자들의 소비 흐름에 맞춰바라는 것, 바랄 수 있는 것을 찾아 경쟁사와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SKT, 안전·보안 지키는 '5G드론' 개발나서

유콘시스템과 업무협약 체결
드론에 5G·AI 등 최신 ICT 접목

SK텔레콤은 무인항공기 개발사 유콘시스템과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5GX 드론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5GX 드론 솔루션'은 5G·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드론에 접목한 차세대 서비스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 안전, 재난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산업시설 보안 ▲실시간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5G 통신, AI 기반 영상 분석과 4K 저지연 영상 전송, 'T 라이브 캐스터' 등 관련 ICT 기술을 개발하



협약식에 참석한 SK텔레콤 김경남 시큐리티랩스장(왼쪽)과 유콘시스템 송재근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고 드론에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드론 장비 개발사 유콘시스템은 드론 개발을 담당한다. 유콘시스템은 드론

제작 기술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5G X 드론 솔루션' 적용에 최적화된 드론을 개발한다. 솔루션과 드론의 최적화 작업은 양사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협력을 통해 드론과 ICT 기술을 접목, 국내 드론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ADT 캡스와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융합 보안 서비스도 발굴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김경남 시큐리티랩스장은 "SK텔레콤의 ICT 기술과 강소기업 유콘시스템의 드론 기술이 융합해 5G 기반의 차별적 드론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며 "향후 국내 드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협력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U+, 인천개항장 골목상권 활성화 돕는다

9일까지 'U+로드' 프로모션
21개 상점서 멤버십 할인혜택

LG유플러스는 오는 9일까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개항장에 있는 음식점 및 카페 등의 상점에 방문하면 최대 50% 할인, 무료 증정 혜택 등을 제공하는 'U+로드'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U+로드는 LG유플러스가 중소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 상권과 제휴하는 프로모션이다. 2018년 10월 서울 종로 서촌과 지난 4월 서울 중구 필동에서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인천개항장에 위치한 약 21개 상점에서 모바일 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The Bazaar', '4B cafe' 등 일곱 개 카페와 '우정', '신포화로구이', '닭면가' 등 여



5월 31일 'U+로드' 행사를 기념해 LG유플러스 고객가치그룹장 조중연 상무(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흥인성 인천 중구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인천 중구청사 앞에서 기념식을 가지고 있다. /LG유플러스

섯 개 음식점에서 이벤트 상품 주문 시 50% 할인 또는 정액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제휴 상점에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1211819', '련라꽃

방' 등 2개 꽃집과 '살롱드 연양네, 바느질 언니네' 등 이벤트 상품에 대해 무료 증정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섯 개 공방도 포함돼 있다.

/김나인 기자



쌍용차 뷰티풀 코란도 전 측면.

디자인에 연비·첨단사양까지 '뷰티풀'



쌍용차 '뷰티풀 코란도'

8년 만에 디자인 등 풀체인지 스포티함과 균형잡힌 안정감 레벨 2.5수준 딥컨트를 장착

"실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연비는 어때요?"

쌍용자동차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뷰티풀 코란도의 기쁨을 넣기 위해 주유소를 방문하자 직원이 차량의 외부 디자인을 둘러본 후 건넌 이야기다.

8년 만에 풀체인지가 이루어진 코란도는 디자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면 디자인은 글로벌 트렌드인 로우엔와이드 스탠스를 적용해 역동적이고 균형잡힌 안정감을 선사한다. 후드는 다이내믹한 라인을 적용해 스포티하다.

라디에이터는 블랙 하이글로시와 크롬 소재의 그릴 적용으로 세련된 느낌을 준다. 여기에 수직으로 배열된 LED 안개등은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측면 디자인은 당겨진 활 시위의 형상이다.

/양성준 기자 ysw@

실내 공간은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넉넉했다. 2675mm의 휠 베이스는 경쟁 모델인 투싼, 스포티지와 비교해도 좀더 길다.

주행성과 연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전남 목포까지 돌아오는 약 700km를 주행했다. 시승차량은 판타스틱 트립(2813만원)으로 옵션을 포함한 가격은 3313만원이다.

초반 가속력은 뛰어났다. 새롭게 개발된 1.6L 디젤엔진과 글로벌에서 검증받은 아이신의 GENⅢ 6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된 덕분이다. 최고출력 136마력에 최대토크 33.0kg·m의 힘을 내는 신형 코란도는 초반 가속부터 앞으로 확 치고 나가는데 부담이 없었다.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기술 딥컨트롤은 운전의 부담을 줄여준다. 지능형 주행제어(IACC)는 확실한 반응이 뛰어나다.

연비는 만족스러웠다. 혼잡한 도심은 물론, 고속도로 등을 주행한 결과 뷰티풀 코란도의 실주행 연비는 15.6km/L를 기록했다. 복합연비(AWD A/T 기준)가 13.1km/L인 것과 비교하면 실제 연비가 좀더 좋았다.